손우철의 행복한 富자되기

원화 강세때 자산운용 전략

수출株보다 내수株 종목 노려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원화 약세와 경상수지 흑자' 기조였던 우리 경제가 최근 몇 년전부터 원화 강세와 경상수지 적자 기조로 전환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을 기준으로 달러당 원화 값은 922원, 100엔당 원화 값은 750엔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유례없는 원화 강세를 반영한 결과다.

복잡한 금융환경 속에서 환율까지 신경써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환율은 나의 해외 자산의 가치를 변동시키고, 국내 증시 및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전반적인 재무설계 차원에서 환율에 대한 위험을 감안한 자산운용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로 株價 충격 올수도

'환차익' 얻으려면 해외펀드 눈여겨볼 만

일반적으로 원화 강세는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이익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실제로 올 1분기 대기업 영업이익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또한 국내 수출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종목에서 일본기업과 경쟁하고 있어 원화강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경우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주가에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단기자금 목적으로 수출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는 채권으로 투자종목을 바꾸거나 안정적인 내수종목으로 종목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 장기투자자의 경우 환율이나 유가에 따른 단기 충격은 오히려 추가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단기충격에 따른 주가하락을 추가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직접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때산돼 있어 보다 안정적이며, 적립식 펀드는 투자 시점이 분산돼 있어 환율에 따른 충격은 무시해도 된다. 하지만 최근 수탁고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 펀드의 경우에는 환율에 따라 수익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투자기간 동안 원화가 강세라면 수익실현 시점에 원화상승분 만큼 수익금을 까먹게 되므로 불리하게 된다. 해외 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자시점에는 원화강세가 유리하며, 자금 회수시기에는 원화약세가 유리하다. 따라서 요즘처럼 원화가 강세일때 해외 펀드에 투자한다면 차후 환율이 현 상황과 비교해 약세일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환 헷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향후 원화 약세인 시점에 자금을 회수한다면 투자수익과 더불어 환차익까지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외 펀드투자는 국내 펀드에 비해 운용보수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국내 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정되지 않은 해외펀드의 경우 수익에 대해 15.4%를 과세하므로, 단순히 환율을 기준으로 투자하기 보다는 국내 주식형 펀드와의 수익률에서 비교우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자산분산 차원에서 투자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TNV 어드바이저 FP팀장〉

소비자 경기전망 3개월째 맑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소비자기대지수도 3개월째 기준치인 100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6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기대지수는 전달(101.1)에 비해 0.4포인트 오른 101.5로, 3개월 연속 100을 웃돌았다.

계절조정을 거친 소비자기대지수 역시 101.2로 앞달의 100.2보다 높아졌다. 소비자기대지수는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6개월 후의 경기나 생활형편 등이 현재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소비자기대지수는 지난해 4월 100.6에서 5월 98.0으로 떨어진 뒤 올해 3월까지 11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다 1년만인 지난 4월(100.1)에야 다시 100을 넘어섰고, 이후 '긍정 우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사회개발펀드 5,000억 조성

산업은행은 5일 LG카드 매각이익 등을 재원으로 5천억원 규모의 지역사회개발 지원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역사회개발 금융프로그램 'kdb ⓤ Project'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역사회개발지원펀드를 이용해 1차로 내년 상반기까지 실행이 가능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5개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이후 추진실적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펀드의 규모와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kdb ⓤ Project'를 통해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초기부터 완료 단계까지 컨설팅과 금융자문, 전문인력 파견 등을 전방위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비정규직 해법 '시각차'

정부 "차별해소 동참 해달라" 재계 "현실무시 강요 말라"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해소에 기업의 동참을 요청했으나 기업들은 개별기업이 처한 경영환경에 따라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5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기업경영협의회, 노동복지실무위원회 연석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노사관계 선진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비정규직 문제이므로 기업들이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해소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되, 정당하게 대우를 해주면서 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업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은 정규직화하거나 비정규직을 없애고 외주나 도급을 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외주나 도급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이에 대해 충분한 여력이 있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바람직하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며, 개별기업이 처한 경영상황에 따라 대응방안도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서울오토쇼 개막

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된 '2007 서울오토쇼'에서 모델들이 자동차카페 '꽃과 어린 왕자' 코너의 슈퍼카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고기는 축산물? 식품?

법률상 "뭐라 말할 수 없다"가 정답

"개는 애완동물일 뿐 아니라 법률상 가축입니다. 그렇다면 개고기는 축산물일까요 식품일까요?"

5일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법률 등에 따르면 "뭐라 말할 수 없다"가 이 두 질문에 대한 정답이다.

개는 현행 축산법 제2조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노새·당나귀·토끼·사슴 등과 함께 가축으로 정의돼 있다. 이는 법률상 개를 기르는 행위가 축산으로, 사육 주체는 축산인으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1항도 "가축이라 함은 소·말·당나귀·노새·면양·산양·칠면조·오리·거위·돼지·개·닭·꿀벌·사슴·토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며 개를 다시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고, 2항에서는 광우병까지 가축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축과 가공 과정에 적용되는 축산물 가공처리법과 시행령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이 법령상 가축의 범위에는 개가 빠져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개 사육과 도축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안전성을 따질 법규가 마땅치않은 상황이다.

목을 매다는 등 개를 잔인한 방식으로 도축하면 동물보호법에 저촉되고, 도축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환경을 훼손할 정도라면 환경오염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도축·가공의 안전성 관리'라는 본질과는 동떨어진 얘기다.

개고기가 '식품'으로서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일까. 보건복지부 산하 식약청 관계자는 "개고기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연산물로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부업 이자 年 49%로 묶는다

재경부 9월중 시행

재정경제부는 5일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과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연 66%에서 49%로 17%포인트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것을 신속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재경부는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업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합리적 방식으로 대출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소액신용대출 금리수준도 동반 하락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경부는 이자제한법이 다시 도입됐고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로 저신용층의 경우 대부시장에서조차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와 공익기금 등을 통한 마이크로 파이낸싱 활성화를 통해 금융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韓 최대수입국, 日서 中으로

올들어 對中 수입액 287억달러 日 제쳐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국이 올해부터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상반기에만 36%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며 이미 일본을 제쳐 하반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간기준으로도 일본을 앞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달 20일까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3%나 불어난 287억3천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10.4% 증가하며 265억7천600만 달러에 그친 일본을 20억 달러 이상의 차이로 뛰어넘는 것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상반기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5%에서 올해는 17.6%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전체 수입액중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 비중은 같은 기간 17.1%에서 16.3%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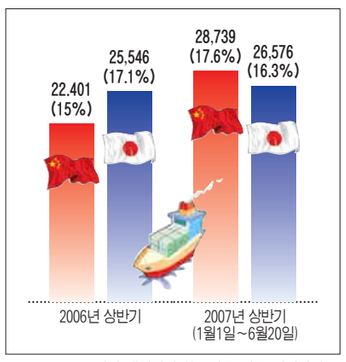
대(對)중 수입액은 2001년만해도 133억 달러 정도로 같은 해 266억3천만 달러에 달한 대일 수입액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한 2003년에도 대중 수입액은 219억 달러로 일본(363억 달러)에 크게 뒤졌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해에는 485억5천만 달러로 519억2천만 달러를 기록한 대일 수입액과의 격차를 33억 달러대로 좁혔다.

상반기 중국으로부터의 품목별 수입 증가율을 보면 철강제품이 97.6%로 거의 2배로 불어났고 전자부품(59.4%), 일반기계(49.7%), 비철금속(42.5%) 등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섬유제품(19.8%), 가전(18.5%), 컴퓨터(12.6%) 등 국내 기업의 생산기지가 이전했거나 저렴한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가진 품목들도 높은 수입 증가율을 기록했다. 산자부는 "모든 품목의 수입이 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 대중·대일 수입 동향



단위:백만달러, ( )=비중, 자료:산업자원부

"론스타 1,400억 세금 추징 정당"

국세심판원 불복청구 기각

론스타측 "법원 항소 할 것"

론스타가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 빌딩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5일 "스타타워 매각차익 과세와 관련해 론스타가 제기한 추징금 불복심판청구 3건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전원합의로 기각을 결정한 뒤 5일 사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돼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소득의 실질적 지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도관회사(Pass-Through)"라며 "따라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국내법상 실질 과세원칙을 적용, 도관회사 거주지국(벨기에)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론스타펀드에 과세한 과세당국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04년 스타타워 빌딩의 매각과 관련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뒤 이듬해 9월 140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지난해 3월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한편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5일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빌딩)의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美부자 희귀야구카드 사고

亞부자는 골프회원권 산다

백만장자 소비행태 대륙마다 달라

유럽의 백만장자는 예술품을 구입하지만, 중동의 부호에겐 보석과 시계가 최고다. 아시아에선 골프회원권이 부의 상징이지만, 미국에선 희귀 야구카드를 갖고 있어야 진정한 부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계적으로 950만명에 달하는 백만장자들이 대륙별로 상이한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미국의 투자회사 메릴 린치와 캡제미니의 보고서 내용을 5일 소개했다.

일단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320만명의 백만장자가 몰려있는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선 사치품 구매비용의 가장 많은 부분(26%)이 자동차와 요트, 비행기 등 백만장자의 '기초품목' 구입에 사용된다.

또한 이 지역 백만장자들은 예술품 구입에 인색한 대신, 사치품 소비의 19%를 희귀 야구카드와 동전 등 수집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대륙에선 찾기 힘든 구매 행태다.

반면 유럽의 백만장자들에겐 예술품 구입이 인기다. 유럽의 백만장자들이 각종 사치품 구매액 가운데 예술품을 구입에 사용한 금액은 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15%)과 중동(15%), 아시아(19%)의 백만장자들과는 취향이 다른 셈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 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한국알프스	2007년 정규직 경력/신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8	062-950-2112
㈜HRN	[목포]SK텔레콤 통신기술직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7/09	062-529-2671
이지디지털㈜	생산관리(여),PCB수리(남),영업관리(남)제조관리(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0	062-955-0801
시트모아	진취적이고 능력있는 웹디자이너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7/10	062-385-4445
㈜피지앤아이 호남본부	경리 및 사무보조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1	062-603-3125
신원전자정밀㈜	구매, 자재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7/12	062-944-8471
세신전자㈜ 장성공장	인사,노무,총무/전기선임/영업(출하 및 상주)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7/13	061-394-4477
㈜혜주주택건설	현장사무직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7/13	062-675-4900
㈜파란정보기술	고객관리 및 제품상담 인력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4	062-385-0524
㈜삼성홈닥터	전화응대/CS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7/14	011-632-5688
하나애드컴	광고 실사 디자이너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6	062-974-0041
인재시스텍	연구용 분석기기 기술직(엔지니어)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0	062-384-6711
동국건설㈜	입찰/계약업무의 부서장급	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07/20	062-606-6522
㈜남영전구 광주공장	기술연구소 연구원-LED연구개발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7/20	062-956-856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